

건강한 속사람 VIII.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1. 새 영, 새 사람

[에베소서 4:23-24]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새롭게' 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23,24절) 라고 말한다. 왜 그래야 할까? 이에 대해 바울은 '영적원리'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 이유는 죄성으로 가득한 옛사람의 속성 때문이다.

2. 옛 사람 -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에베소서 4: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옛사람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방인'을 예로 들고있다. 이방인은 누구인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1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다. 헛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헛된 생각이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말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가치정렬'이 속사람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진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3. 육에 속한 사람

[에베소서 4:18]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향한 성경의 정의는 생물학적이 아니다. 영적이다. 성경에서의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이 가득하다. 이와 같은 속성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지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1) 무지 - 깨닫는 마음이 어두운 상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갓 난아기'라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3: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 제시팬 루이스 '영과 혼'**

- **영적인 사람** : 새로워진 인간의 영에 거하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는다.
- **혼적인 사람** : 혼, 즉 지성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 **세속적인 사람** : 육체적 습관들이나 욕망들인 '육체의 능력' 즉 육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이란 '영혼육'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죄'의 상태이다. 죄는 과녁에서 벗어난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녁) 정중앙에 있어야 할 인간의 벗어남은 처음에는 틈이 작은 것 같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틈을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 버렸고, 그 틈은 인간의 노력으로 건너올 수 없는 간격이 되어버렸다.

*** 죄 된 상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

a) 영의 분리

하나님과 영이 분리된 상태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타락했고 그 분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에베소서 4:18).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혼이 지배 (지성, 마음, 의지, 즉 자아중심의 지배)하거나, 육이 지배하는 두 상태로 나타난다. (몸에 있는 욕망과 기호들이 혼을 노예로 만들어 지배한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지극히 육적이며 본능적이다)

b) 세상의 영과 하나된 몸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영과 교류하기를 추구하고, 마귀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에베소서 2:2-3]

2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나 몸 만큼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영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도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주로 혼적이거나 육신적인 사람들 보다는 '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c) 혼이 지배하는 사람 = 육이 지배하는 사람

타락한 인간의 영, 즉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영은 말하자면 혼의 그릇 속으로 들어간다. 그 혼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권세라고 부른 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하여 혼은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감각적으로, 대개는 둘 다를 이용하여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혼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

'포세트'의 주석서에서 = '인간이란 존재의 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당연한 상태는 영이 첫째가 되어 몸과 영의 중간에 위치한 혼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자연인에게 영은 육신적 혼에 종속될 정도가 되어버렸다. 육신적인 혼의 동기와 목적들을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들에게 가장 낮은 요소인 육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다.

결국, 육신적인 혼과 육이 서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세속적'인 상태이다. 성도에게 '세속적'이란 의미는 바로 이런 상태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2) 다시 태어나야 한다 = 거듭남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의 대안은 종교지도자 니고데모의 질문에 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지도자였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표징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안다고 고백했다.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죄인의 형상(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상태, 옛 자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옛 자아에서 나오는 파멸의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3) 갓난아이

고린도전서 3:1절에 나타난 갓난아이란,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영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의 말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에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하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죽었고 다시 태어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이다.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간단하다.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모르는 단계이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지않은 '혼(자아)'가 모든 가치 체계를 만들고, 그 중심에 자기가 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다.

2.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1-2]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자를 설명하기전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먼저 선포한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선포했다. 신령한 자란 무엇인가? 행위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의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혼과 육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자아중심의 '의'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부셔지는 것이 성령충만한 것이며, 영에 속한 사람(생명을 열매)인 것을 아는 것이다.

율법은 행위로 나의 '의'를 세우라고 말한다. 율법에 묶인 사람은 '자아'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20절의 단계이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소욕을 소개하며, 이에대한 해결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영, 혼, 육의 분리)가 완전히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라.

옛 자아가 주는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한다(에베소서 4:18).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말한다. 굳어지면 변하지 않는다. 새 영,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

- (1) 굳어진 생각, 신앙의 태도에서 실제로 벗어나야 한다.
- (2) 세상의 풍조로 인해 틀어진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처, 세상풍조)
- (3)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통하여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 영,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을 수 있다.